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361

포토샵 레이어 기능을 활용한 동양회화 구도수업

Composition of Oriental Painting Lesson Using Photoshop Layers

박하나*, 허윤정**
덕정중학교 미술교사*,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입체미술전공/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Ha-Na Park(onezziyang@daum.net)*, Yoon-Jung Huh(huh0900@kookmin.ac.kr)**

요약

동양회화 수업이 소홀히 여겨지는 이유는 교사의 부담과 용구의 준비와 사용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감은 매체의 전환으로 극복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양회화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며 효과적인 구도 수업을 위한 방안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의 레이어를 활용한 동양회화 구도 수업을 제시하였다. 포토샵을 활용한 동양회화 구도 수업 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고등학교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과 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수업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대다수(75%)가 동양회화 구도 수업에 포토샵 수업이 적절하며, 포토샵을 활용한다면 주제에 상관없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58.3%로 포토샵에 높은 흥미를 나타내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의 장점으로 직접 그리지 않아 부담이 적은 점(33.3%),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점(30%), 준비물이 없는 점(26.6%) 등을 답하여 포토샵 활용이 기존 동양회화수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동양회화 구도수업 | 포토샵 프로그램 | 레이어 |

Abstract

Oriental painting lesson is considered neglectedly, because of pressure on teachers and troublesomeness of preparing and using for art supplies. However, change of medium can solve pressure on teachers and students for Oriental painting lesson enough. Therefore this study will present composition of Oriental painting lesson planning using photoshop program as a way of overcoming weak points, increasing students' interests and giving effective composition lesson. We developed composition of Oriental painting lesson planning using layer of photoshop program. Then We surveyed 60 students who are two classes of the first grade in G high school to know the effect and possibility of the lesson planning and analyzed the results. The most(7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composition of Oriental painting lesson planning using photoshop program was appropriate. The more than half (58.3%) respondents wanted to participated in lesson regardless of any subjects. That shows highly interest for photoshop program.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merits of this lesson using photoshop program are less pressure for drawing(33.3%), possibility of variety expression(30%), not requiring art supplies(26.6%). So this study shows using photoshop program for art class can solve weak points of Oriental painting lesson.

■ keyword : | Composition of Oriental Painting Lesson | Photoshop Program | Layer |

접수일자 : 2014년 06월 09일
수정일자 : 2014년 07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7월 24일
교신저자 : 허윤정, e-mail : huh0900@kookmin.ac.kr

I. 서 론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의 현장에서 동양회화 수업이 소홀히 여겨지는 이유로는 교사의 부담과 더불어 용구의 준비와 사용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고정곤[1]은 한국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학교 미술교육에 서양회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교사가 전통적인 한국화 표현기법에 대한 부담으로 한국화 수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그의 연구에서 한국화가 교육 현장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요인으로 학생들의 용구 준비와 사용의 번거로움, 표현기법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하여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적어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도 불구하고 용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양회화라는 전통적인 소재와 새로운 매체의 결합을 시도하여 미술교육을 통한 전통적 미의식과 예술적 요소들을 이해시키고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김혜숙[2]은 미술교육에서 이전의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화, 사진, 디지털 아트 등의 기법과 방법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미의식을 폭넓게 접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회화의 가치를 현대의 소통 가능한 매체 활용을 통해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정식[3]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인문학과 예술 과학의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 교과를 대상으로 미술 교과와의 통합, 융합, 통섭을 위한 교사들의 융합적 사고와 선도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원두[4]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이 결합한 디지로그 개념을 활용한 미술 표현지도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수업 방법에 컴퓨터와 휴대전화기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논문들은 기존의 미술수업을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접근하려는 시도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화, 더 넓은 관점에서 동양회화라는 전통적인 소재를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술의 기본 요소인 구도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동양회화 구도 수업안을 계획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의 명화를 재구성(再構成) 해 봄으로써 구도가 갖는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동양회화가 구도에서 갖는 특징으로 여백과 제발(題跋)과 낙관(落款)이 있다. 제발과 낙관은 그 자체로써 가지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백과 함께 화면을 구성하여 조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작품의 구도를 이루는 요소로서 여백, 제발, 낙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명화를 재구성해 보고 재구성한 작품을 원작 혹은, 다른 친구의 작품과 비교 감상해 봄으로써 작품 내에서 여백, 제발, 낙관이 구도에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G고등학교 1학년 2학급 6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과 후에 한 설문조사와 수업 결과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동양회화 구도의 특징과 사상적 배경

동양 회화의 산수화에서는 크게 북송(北宋)과 남송(南宋) 대를 기점으로 두 가지 화풍으로 나뉘어 발달하였다. 이러한 화풍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북송의 산수화의 구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북송의 높고 험준한 산과 거대한 자연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세로로 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대상을 배치하는 방식은 여백을 많이 남기기보다 화면 전체를 활용하여 힘차고 괴량감 넘치는 산수를 표현하였다. 사상적 측면에서 '격물'정신의 영향으로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의 특징을 정확히 관찰하고 이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도록 하는 자세를 형성하여 북송 산수화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남북송 교체기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북송의 산수화와 남송의 산수화가 매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수도를 강남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높고 험준하고 추운 북방의 자연에서 넓은 강이 흐르고 낮은 토산으로 둘러싸인 강남을

주제로 산수화가 표현되었다. 그리고 휘종의 즉위와 함께 황실의 취향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고 화원들은 황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화풍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장식적 목적에서 감상의 목적이 강조된 긴 형태의 그림은 남송 시기 가로로 긴 구도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하파로 대표되는 남송의 화풍은 대관산수의 구도에서 벗어나 변각산수(邊角山水)를 그렸다. 이러한 구도는 북송 대관산수의 힘차고 괴량감 넘치는 분위기와 다르게 시의가 풍부한 산수화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화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국적인 화풍을 이룩한 것이 조선후기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이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화풍이지만 진경산수화 역시 이러한 중국의 산수화 양식을 토대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북송과 남송의 산수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천을 관찰에 토대를 두어 표현하되 화가의 감정을 반영한 표현이다. 즉, 우리나라의 실재하는 경치를 그린 그림을 '실경산수화'라고 할 수 있지만 남종화법을 가미하여 그린 것은 '진경산수화'라고 할 수 있다[5]. 진경산수화의 형성 배경에는 사상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있다. 사상적 배경은 실학은 조선 후기에 자아의식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성향은 진경산수화뿐만 아니라 풍속화가 발달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종화는 형사(形似)보다는 화가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표출하는 사의(寫意)를 중요시하기 새로운 화풍의 태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6]. 동양회화 수업에서는 동양회화의 구도의 형성배경과 그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III. 동양회화에서 구도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과 수업활용 방안

동양회화와 서양회화는 구도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첫째, 자연에 대한 다른 관점에 기인한다. 동양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일원론적 자연관을 지녔기 때문에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고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생략하거나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둘째, 표현재료가 달랐기 때문이다. 동양회화는 먹과 수용성 안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였고 여백을 남겨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서양회화는 유화물감의 발명으로 3차원의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했으며 구도에서도 사실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양회화에서 구도를 이루는 요소에는 여백, 제발, 낙관이 있으며 각각의 개념과 각 요소들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백

여백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동양, 특히 한자문화권의 기(氣)에 대한 인식은 이미 중국의 사혁이 화육법에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기운생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기운생동이란 대상의 개성적인 풍격이 화면에서 살아 약동하는 듯이 그리는 것으로 중국 고유의 정신적, 내면적인 면을 중시하는 회화관이라 볼 수 있다[7]. 이 기(氣)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표현되는 부분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는 부분 즉, 여백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둘째, 왕백민[8]은 "여백을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공간으로 느껴져 허(虛)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산수에서 큰 여백은 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실(實)이 되기도 한다. 허와 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낳는다."(虛實相生)라고 말하면서 여백의 개념을 그려진 부분인 실과 반대의 개념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여백은 한자문화권의 그림이 공유하는 조형적 특징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문인화(文人畵)에서 잘 나타난다[9]. 조선시대의 사대부(士大夫)들이 즐겨 그린 문인화는 생계가 아닌 정치적 이상과 정신성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표현에 치중하여 화면 가득 메우는 표현보다는 욕심 없는 청렴한 인간상과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백을 남기며 사군자나 수묵산수화를 그렸다. 즉, 그러한 정신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백을 많이 남기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넷째, 여백은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8].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 연필로 점 하나만 찍으면 점 하나에 집중이 되지만 이것저것 그려진 위에 점을 찍으면 그 변화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백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붓과 먹으로 종이 위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붓에 묻히는 먹의 양과 농도를 적당히 조절하고 붓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종이 위에 뜻하는 대로 붓이 지나가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 자체를 익히는 것과 별개로 여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그린다'와 '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지를 '놓다'와 '빼다'의 개념으로 바꾸어 여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옮기고 변형시키는 과정은 붓이나 인쇄된 이미지로 직접 해보는 것보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을 때 효과적이다.

2. 제발

제발이란 쉽게 말해서 화면 위에 쓴 문자를 말한다. 그림에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나 감흥, 작가에 대한 평, 그림의 전래 경위, 진위에 대한 고증 등의 그림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친구나 선배 또는 후학들이 적어놓은 것이다. 제발은 포토샵 프로그램의 글자 도구(text tool)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상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 보도록 할 수 있다. 작품의 이미지를 재배치하듯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제발을 만들고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붓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과 글을 동시에 표현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제발은 수정하고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발을 배치해 보는데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제발을 옮기며 작품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는 작업을 통해서 제발 역시 구도를 이루는 요소로서 이미지처럼 인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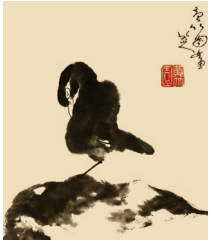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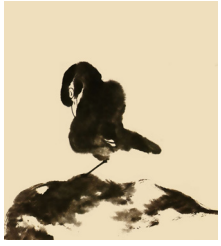
낙관이란 '낙성관지(落成款識)'의 약자로 서화를 완성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작가의 자호, 제작 연월일, 제작 동기 그리고 시문(詩文)등을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넓게는 도장을 찍는 것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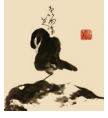
낙관의 경우 용도에 따라 관에서 쓰이는 관인과 개인이 쓰는 사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인에는 작가의 것인 호인, 성명인과 작가가 아닌 사람의 것으로 감상인과 감정인 등이 있다. 찍는 위치에 따라 두인과 유인으로 나뉘는데 두인은 작품의 머리 부분, 유인은 빈 여백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찍는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성명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장의 외곽을 포토샵 파일로 제공하고 빈 여백에 넣을 수 있는 도장을 포토샵 파일로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장인이나 감상인과 같이 다른 이의 낙관이 작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학생이 맘에 드는 낙관을 작품에 같이 배치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낙관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낙관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토대로 하였다. 학생은 직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낙관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것을 직접 작품에 배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낙관을 같이 배치해 봄으로써 낙관을 단순히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단순히 갖다 붙이는 활동이 아니다. 낙관과 다른 이미지들의 조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도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여백과 제발, 낙관은 동양회화의 조형적 특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제발이 필요하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다. [표 1]은 원본인 [그림 1]을 제발과 낙관의 위치와 유무를 바꾼 것으로 그에 따른 구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팔팔조도(叭叭鳥圖)>[그림 1]은 제발과 낙관이 작품의 여백을 채워주고 정중앙에 정적인 새 이미지에 변화를 주어 지루할 수 있는 화면 구성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었다[8]. 만일 작품에 [그림 2]처럼 제발과 낙관이 없이 이미지만 있었다면 매우 정중앙에 있는 새가 더욱 정적으로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루한 화면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새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다른 사물을 함께 배치하여 구도를 바꿀 수도 있다. [그림 3]은 제발의 위치를 달리하여 원

본의 작품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말풍선처럼 제발을 주제 가까이에 배치하여 깊은 생각에 잠긴 새가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생겼다. 반대로 [그림 5]는 낙관의 위치를 달리해 보았다. 원본과는 다르게 제발과 낙관을 따로 떼어 반대편에 위치시켰다. 주제와 제발, 낙관으로 시선이 셋으로 분산된다. 작품의 주제가 정중앙에 단순하고 강하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주제 표현이 강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시선이 더욱 분산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이다.

표 1. 제발과 낙관에 따른 변화.

원본	필자가 수정한 작품
 **그림 1. 팔대산인〈팔팔조도〉**	 **그림 2. 제발과 낙관을 제거한 팔팔조도**

필자가 수정한 작품			
제발에 따른 변화		낙관에 따른 변화	
제발 위치	제발 없음	낙관 위치	낙관 없음
 **그림 3. 제발의 위치를 옮긴 팔팔조도**	**그림 4. 제발을 제거한 팔팔조도**	**그림 5. 낙관의 위치를 옮긴 팔팔조도**	**그림 6. 낙관을 제거한 팔팔조도**

[그림 4]와 [그림 6]은 제발과 낙관 둘 중의 하나를 제거해 보았다. 그림에 따라 제발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구석에 작게 위치시킨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의 경우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간략하게 표현하여 구도가 단순하므로 여백과 제발의 생략이 부적절하다. 이렇듯 작품의 여백에 따른 제발과 낙관의 위치와 유무만으로도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학생들이 직접 작품의 구도를 재배치해 여백을 만들어 보고 제발과 낙관을 넣어 보는 활동을 통해 포치와 포백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능과 수업활용 방안

포토샵 프로그램은 가장 폭 넓게 활용되는 시각 편집 도구로서 컴퓨터상에서 여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변형시켜 그것을 작품의 결과물로 제시하기도 한다. 포토샵 프로그램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더욱 친숙한 매체가 될 수 있으며 작품의 구도를 잡아보는 등 작품 제작 과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동양회화 구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업활용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능

1.1 이미지 자르기와 이동하기

'레이어(layer)'란 막, 층이란 뜻으로 한 화면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앞과 뒤의 순서를 가지며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뉜 이미지는 저장 옵션에 따라 'jpg, gif, bmp'등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나 레이어, 채널, 패스 등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파일 형식(file format)인 PSD(periscope debugger definition)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포토샵 전용 파일 형식이므로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존재하는 레이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하나의 레이어를 여러 개로 자르거나 여러 개의 레이어를 다시 하나

로 합칠 수도 있다. 이렇게 자르거나 합친 레이어를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을 컴퓨터가 아닌 실제로 해 본다면 종이에 인쇄된 그림을 여러 장 복사해서 오린 뒤 구도를 배치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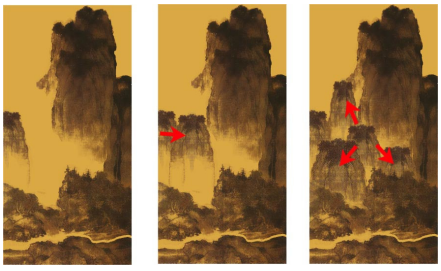


그림 7. 레이어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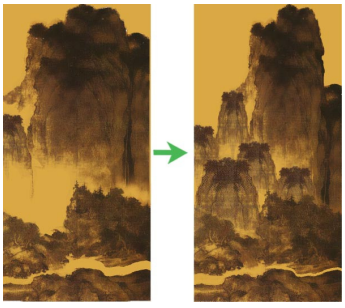


그림 8. 레이어 변형과 복사에 따른 구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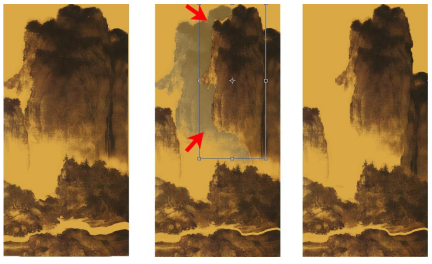


그림 9. 레이어 변형하기

1.2 이미지 복사하기와 변형하기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원본을 여러 개로 복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포토샵 프로그램에서도 원하는 레이어를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기에 원본 이미지를 남겨두고 복사해 둔 이미지를 마음껏 변형할 수 있다. 이미지를 변형하는 방법은 [그림 7][그림 8][그림 9]와 같이 특정 부분을 지우거나 복제할 수도 있고 원본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다르게 만들어 왜곡시키기 혹은 크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구도를 잡게 되면 화면상의 공간에서 원본과 다른 공간을 연출하게 되므로 구도를 잡는 연습이 될 수 있다. 이미지 복사와 크기를 왜곡시킨 것이 원본과 구도에서의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1.3 전 단계 작업으로 복귀하기

미술 수업에서 '그리기'와 '만들기'와 같은 표현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이다. 일명 '망쳤다'라고 하며, 방금 작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전이 훨씬 좋았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히스토리(History)'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 일정 수준까지 작업 과정을 자동으로 저장해 전 단계의 작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이 기능을 활용하면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V.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양회화의 구도 수업의 실제

1. 수업 전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양회화 구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기존 동양회화 수업에 대한 인식, 산수화의 구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3년 동안 미술 수업에서 받은 동양회화 수업 경험과 수업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학교 3년 동안 동양회화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42명(70%)의 학생이 '동양회화 수업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하였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상수업'이 가장 많은 45.0%, '서예수업'이 43.3%로 , 그리고 '표현수업'이 3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중학교 3년간의 미술 수업에서 서예를 포함하여 단 한 번도 동양회화를 접해 보지 못한 학생이 17명인 28.3%에 이른다는 것은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술 수업이 우리가 속한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술수업에서 동양회화와 서양회화의 수업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서양회화 수업이 더 많았다.'가 23명(38.3%)이었고, '서양회화 수업으로만 이루어졌다.'는 17명(28.3%)으로 서양회화 수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는 응답이 66.6%에 이른다. '동양회화 수업이 더 많았다.'와 '동양회화 수업으로만 이루어졌다.'는 5명인 8.3%로 서양회화 위주의 미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호도 면에서 '둘 다 좋다.', '비슷하다.', '관심없다.'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제외하고 살펴보겠다. '동양회화 수업이 더 좋다.'는 1명(1.6%), '서양회화 수업이 더 좋다.'는 8명(13.3%)로 서양회화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그러나 동양회화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이 동양회화 수업을 선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수치상으로는 1: 8로 서양회화에 대한 선호도가 8배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서양회화에 노출된 정도에 비해 학생들의 선호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립적인 입장을 택했던 학생이 51명으로 무려 85%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동양회화와 서양회화에 대한 선호에서 서양회화에 대한 선호가 13.3%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게 된 근거를 조사하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를 진행하였던 학생들 대부분은 미술 수업에 대한 열의나 흥미가 낮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전 진행중이였던 표현 활동에서도 작품에 몰입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미술 수업이 부담되는 이유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질문하였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으로 '잘 그리지 못해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가장 부담된다.'라고 답한 학생이 39명(65.0%)으로 가장 많았다.

'동양회화 수업이 불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붓으로 그리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24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공통적으로 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의 부족이 미술 수업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 외에 미술 수업에서 '수정의 어려움' 12명(20%), '준비물에 따른 부담' 10명(16.6%), '표현재료의 한계'에 대한 것은 7명(11.6%)로 28.2%의 학생이 답하였다. 표현 능력 외에 매체에 대한 한계점이 미술 수업을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2. 미술 수업이 부담되는 이유.

질문 1-1	미술 수업에서 가장 부담이 되거나 아쉬운 점, 혹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잘 그리지 못해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가장 부담된다.	34	56.6
	② 한 번 그린 그림은 수정이 어려워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가장 부담된다.	9	15.0
	③ 수업 준비물이 많아서 가장 부담된다.	8	13.3
	④ 표현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아쉽다.	7	11.6
	⑤ 기타	2	3.3
질문 1-2	**만일 동양회화 수업이 불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준비물이 많아서	6	10.0
	② 붓으로 그리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24	40.0
	③ 한 번 그리면 수정이 어려워서	13	21.6
	④ 동양회화 수업을 한 적이 없다.	17	28.3

[표 3]의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가 5명(8.3%), '대충 알고 있다.'가 30명(50%), '잘 모르겠다.'가 25명(41.6%)으로 산수화와 풍경화의 차이를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산수화의 구도를 이루는 요소들(여백, 제발, 낙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는 학생은 6명(10%) 밖에 없었으며 전혀 모르겠다는 학생은 29명으로 절반의 학생이 해당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용어는 여백이었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포토샵 프로그램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관심 있다.' 20명(33.3%), '약간 관심 있다.' 19명(31.6%)으로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64.9%에 해당하였다. 반대로 '별로 관심 없다.' 5명(8.3%), '전혀 관심 없다.' 7명(11.6%)으로 관심 없는 학생은 19.9%에 해당하였다. 이 결과는 동양회화와 서양회화 수업 비중과 선호도에서 어떤 수업을 하던 '관심 없다.'라고 답한 학생이 24명(40.0%)인 것에 비하여 포토샵 프로그램 수업에 관심 없는 학생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술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포토샵이라는 매체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표 3. 산수화의 구도에 대한 이해.

질문 2-1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잘 알고 있다.	5	8.3
	② 대충 알고 있다.	30	50
	③ 잘 모르겠다.	25	41.6
질문 2-2	**산수화의 구도를 이루는 요소들(여백, 제발, 낙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잘 알고 있다.	6	10.0
	② 셋 중 한 가지만 알고 있다.	18	30.0
	③ 셋 중 두 가지만 알고 있다.	7	11.6
	④ 셋 다 모르겠다.	29	48.3

수업 전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수업이 서양회화 수업에 치중하여 동양회화 수업은 소홀하게 이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2011)가 제시하고 있는 미술과목 목표인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해서 동양회화 수업과 서양회화 수업이 동등한 위치를 갖고 조화를 이루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술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그림에 대한 표현력 부족에 따른 자신감 결여가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표현 능력 외에 매체의 한계점을 미술 수업에서 부담되는 요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매체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이며 포토샵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포토샵 프로그램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의 부담감을 줄여주며 매체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업 계획

'동양회화의 구도를 이해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구도 재배치하기'라는 단원명 하에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2.1 학습 목표

(1) 동양회화와 서양회화의 구도에서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2) 동양회화의 여백과 제발, 낙관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3) 북송과 남송의 산수화와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 구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4) 포토샵의 기능을 알고 동양회화 작품의 구도를 재배치 할 수 있다.

(5)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표 4]는 학습목표에 따른 각 차시별 지도계획이다.

표 4. 차시별 지도계획.

차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1/5	• 동양회화 구도에 대한 이해	• 동양회화와 서양회화의 구도 비교 감상하기 • 중국의 북송과 남송의 산수화 감상하기 • 조선후기의 진경산수화 감상하기 • 동양화의 여백과 제발, 낙관의 의미와 역할 이해하기
2/5	• 포토샵을 통한 표현활동	• 포토샵 기능 익히기 • 동양회화 작품의 구도를 재배치 해보기
3/5		• 재배치 한 작품에 제발과 낙관을 넣어 완성하기
4/5	• 완성 작품 감상, 발표	• 동양회화 구도의 특징을 알고 재구성한 작품을 감상 발표하기
5/5	• 완성 작품 보고서 작성	• 완성 작품과 원본을 비교하여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 작성하기

2.2 수업진행 과정

1차시에서는 동양회화와 서양회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먼저 동양의 산수화 작품과 서양의 풍경화 작품을 동시에 보여 주어 동기유발 하도록 하였다. 중국 북송과 남송 산수화의 특징과 형성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 북송과 남송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의 사진과 작품을 같이 제시하여 구도에서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우리 산천을 그린 진경산수화와 실제 풍경 사진을 같이 보여주고 실제의 경치를 어떻게 그림으로 옮겼는지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백, 제발, 낙관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동양에는 있는데 서양에는 없는 것은?'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백, 제발, 낙관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나 그림을 제시하며 설명하니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다만, 여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들어본 경험이 있어 쉽게 받아들였지만 제발과 낙관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조금 어려워하였다. 여백이 친숙한 용어이긴 하지만 '그리지 않고 남겨둔 것은 모두 여백'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작품의 공간 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워 놓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장 먼저 실습수업을 위해 준비한 포토샵 파일(산수화를 레이어로 나누어 놓은 파일)을 학생들이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뒤 수업을 진행하였다.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였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의 경우 파일이 저장된 CD를 제공하여 해결하였다. 학생들도 처음 파일을 다운받고 업로드 할 때는 시간이 걸리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지만 그 다음 차시에는 파일을 다운받고 업로드 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한 반에 30명의 학생들을 6명씩 5조를 나눠 포토샵 파일로 재구성할 작품을 조별로 제공하였다.

2, 3차시에서는 이미지 이동하기, 변형하기, 복사하기, 되돌아가기와 같은 기초적인 기능을 익히고 글자 툴(text tool)을 사용하여 제발 쓰기, 낙관 만들기를 설명하였다. 단계별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수시로 체크하며 수업을 진행하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한 경우 소수의 학생들은 전체적인 설명이 끝난 뒤 개별 지도를 하였다. 제발과 낙관을 만들어 그림에 배치하는 방법까지 일러준 뒤에는 자유롭게 배치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만든 이미지의 배치와 상관없이 제발과 낙관을 넣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이 이미지를 배치한 것과 제발과 낙관의 관계를 생각해서 구도를 구성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4차시에서는 작품을 완성한 뒤 조별로 모여 토론한 뒤 발표하도록 하였다. 토론 내용은 자신의 조에서 구도가 잘 표현된 작품을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작품에 비해 어떻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좋은 구도로 보였는지 토론하도록 하였다. 토론이 끝난 뒤 조별로 완성한 작품을 다시 한 번 ppt를 통해 작품을 보면서 발표하도록 하였다.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발표를 한 뒤에 교사의 관점에서 구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직접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언급했을 때 집중도도 높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도 빨랐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미지를 한 쪽에 집중시키고 여백이 많은 반대편에 제발과 낙관을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보이는 작품을 좋은 구도라고 생각하였다.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표현활동을 할 때 그림과 제발을 겹쳐서 놓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림과 제발 모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해주었다. 바로 개선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바꾸지 않고 겹쳐서 놓고 싶다며 구도를 바꾸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 조별로 발표할 때 다른 학생들의 작품과 한데 모아서 그림을 보고 나니 고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작품이 산만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여러 학생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같이 비교하며 토론하도록 하였을 때 학생들이 자신이 표현한 작품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갖게 되고 자신이 표현한 작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3 평가방법

5차시에서는 [표 5]와 같이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평가에 반영하였다. 자기평가 보고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이 재구성한 명화 작품과 원본을 비교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생 스스로 재구성한 작품이 미흡하다고 느낀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였고 재구성한 작품이 만족스럽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였다. 단, 구도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동료평가 보고서는 자신의 작품과 다른 친구의 작품을 비교하고 평가해 보고 다른 친구의 작품이 미흡하게 느낀 경우 고치고 싶은 점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였다. 자기평가와 마찬가지로 친구의 작품이 만족스럽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였다.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는 학생 제작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동료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표 5. 학생 작품과 자기평가 보고서

그림 10.
정선〈백천동〉

그림 11.
김** 학생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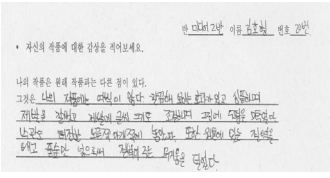


그림 12. 자기평가 보고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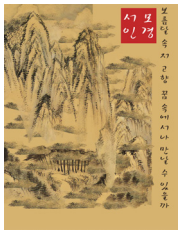


그림 13.
모** 학생 작품.

그림 14.
김동* 학생 작품.

이러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07)는 교사에게 학생의 관찰이나 판단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표 5] 학생의 작품과 자기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학생은 여백을 잘 살리고 제발의 크기를 다양하게 써서 허전할 수 있는 공간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였다. 본인도 자신의 작품의 장점을 여백을 많이 살렸으며 제발과 낙관의 위치에 신경 써서 배치한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여백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작게 줄이거나 한 쪽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들고 제발과 낙관의 위치와 크기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이미지를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본인 정선의 <백천동>은 여백이 거의 없이 이미지를 빽빽하게 채운 구도였는데 [그림 11]의 학생 작품은 원본의 느낌을 반전시키는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VI.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양회화의 구도 수업의 결과 분석

경기도 일산의 G고등학교 1학년 2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지를 통해 수업의 결과를 조사하였다.

[표 6]의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의 구도에서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 40명의 학생이 '잘 알게 되었다.'고 답을 하였고 산수화의 구도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 질문에서 46명의 학생이 '잘 알게 되었다.'고 답을 하여 적어도 76.6%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사전 설문 조사에서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5명으로 8.3%, 산수화의 구도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 질문에 '잘 알고 있다.'가 6명인 10%였던 것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이도 면에서도 42명의 학생인 70% 정도 학생이 수업의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쉽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0%, '어렵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0%정도로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학생들에게는 학습 수준에 맞는 수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개별 지도로 수준에 맞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 산수화 구도 수업 내용에 대한 설문.

질문 1-1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의 구도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잘 알게 되었다.	40	66.6
	② 보통이다.	16	26.6
	③ 아직도 잘 모르겠다.	4	6.6
질문 1-2	**산수화의 구도를 이루는 요소들(여백, 제발, 낙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잘 알게 되었다.	46	76.6
	② 구도의 요소들 중 한 가지만 알게 되었다.	3	5.0
	③ 구도의 요소들 중 두 가지만 알게 되었다.	8	13.3
	④ 아직도 잘 모르겠다.	3	5.0
질문 1-3	**산수화 구도 수업의 난이도는 적절했습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매우 쉬움	1	1.6
	② 쉬움	11	18.3
	③ 적절함	42	70.0
	④ 어려움	5	8.3
	⑤ 매우 어려움	1	1.6

[표 7]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업보다 좋은 점으로 '준비물이 없어서 좋다'와 '직접 그리지 않아서 부담이 없어서 좋다'가 각각 18명과 22명이 응답하여 총 5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일반적인 동양회화 수업에서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미술 수업을 어렵게 느끼게 만들었던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루는 난이도는 단 5명의 학생들만이 어려움을 느끼고 나머지 55명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난이도가 적절하거나 쉽다고 응답하였다. 포토샵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미술수업의 부담을 줄여주어 수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므로 포토샵 프로그램의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에 '동양회화 구도 수업에서 포토샵 프로그램 적용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45명의 학생인 75%의 학생이 구도 수업에 적절했다고 답하였다. '수업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답한 학생이 47명인 79%였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도수업이 적절했으며 미술의 표현 매체로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유사성을 있다는 점에서 미술 수업에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수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만족도는 동양회화에 대한 태도 및 동양회화의 가치와 의미의 향유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설문.

질문 2-1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산수화 구도를 재배치하는 점	12	20.0
	② 제발을 쓰고 배치하는 점	9	15.0
	③ 낙관을 만들고 배치하는 점	8	13.3
	④ 그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실기 수업이라는 점	8	13.3
	⑤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루는 점	23	38.3
질문 2-2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업보다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준비물이 없어서 좋다	16	26.6
	②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	3	5.0
	③ 직접 그리지 않아서 부담이 없어서 좋다	20	33.3
	④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좋다	18	30.0
	⑤포토샵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13	21.6
질문 2-3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업의 난이도는 적절했습니까?**	**응답수 (N=60)**	**백분율 (%)**
응답	① 매우 쉬움	12	20.0
	② 쉬움	13	21.6
	③ 적절함	30	50.0
	④ 어려움	4	6.6
	⑤ 매우 어려움	1	1.6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 결과 다음 수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주제로 수업을 한다면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수업 주제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한 학생은 21명인 35% 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은 4명인 7%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놀랍게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으며 '포토샵을 활용한다면 좋다'라고 답한 학생은 가장 많은 35명으로 58%였다. 학생들이 구도 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

보다 포토샵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다루는데 훨씬 즐거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토샵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수업'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응답한 것은 '사진 보정과 합성 수업'과 '다른 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업'이었다. 두 설문을 종합해 보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강한 흥미를 보이며 그러한 활동이 미술 수업보다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토샵 프로그램이 시각 이미지를 다루는 점에서 미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미술 수업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배우는 활동에 치우친다면 단순한 기능을 익히는 수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포토샵 프로그램과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이 미술 수업을 좀 더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미술교과의 본질이 '미'에 대한 발견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업 후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회화 구도 수업의 내용을 대부분의 학생이 어렵지 않게 느껴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였다. 단, 개인차에 따른 개별지도로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 둘째, 포토샵 프로그램의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느끼는 '그리기'와 '준비물 준비'에 대한 부담 등을 줄여 주기 때문에 미술 수업을 도움을 주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루는 활동이 학생들이 다루기에 적절한 난이도로 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셋째, 동양회화 구도에 대한 수업과 포토샵 프로그램의 활용이 적절했으며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생들이 포토샵이라는 매체에 대한 흥미가 높아 미술에 대한 흥미가 없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흥미로만 끝나는 수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능을 다뤄보고 끝나는 수업이 아닌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미술 수업이 되어야 한다.

VII. 결론

동양회화를 수업에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용구 준비와 사용의 번거로움과 학생들이 표현 수업을 꺼리는 이유로 용구 준비와 표현 활동의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고 구도 수업에 적합한 매체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포토샵 프로그램이 구도 수업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를 자르고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작품의 구도를 재구성 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 이미지의 복제와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구도를 재구성 할 수 있다. 셋째, 이미지의 확대와 축소가 편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탈피하여 구성하는 것이 자유롭다.

포토샵으로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그린다'와 '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지를 '놓다'와 '빼다'의 개념으로 바꾸어 여백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제발을 옮기며 작품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는 작업을 통해서 제발 역시 구도를 이루는 요소로서 이해하게 했다. 낙관도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단순히 갖다 붙이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들의 조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여 구도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키고자 포토샵을 활용한 동양회화 구도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고 적용해 보았다. 수업을 적용하고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회화 구도 수업을 통해 구도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꼈던 학생들도 구도에 따른 효과를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좋은 구도와 그렇지 못한 구도를 구별하고 그렇지 못한 구도를 좋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셋째,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여 미술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넷째, 미술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포토샵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더욱 강하여 미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포토샵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미술에 대한 진정한 흥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의 주제가 교육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양회화 구도 수업은 학생들이 미술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여 구도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표현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구도를 재구성해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동양회화 구도 지도 수업 경우 용구 사용법과 표현능력에 대한 지도가 축소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구도에 대한 접근을 하게 한 뒤에는 종이에 연필, 물감 등의 전통적인 매체로 직접 그린 그림을 그려 그것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도록 한다면 디지털 매체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양회화 중에서도 산수화를 주제로 수업 안을 제시하였지만 문인화, 풍속화 혹은 서양회화 작품을 주제로 구도 수업을 해보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정곤, “한국화 기법을 활용한 추상적 심상 표현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1집, pp.157-178, 2001.

[2] 김혜숙, “한국 전통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21세기 미술교육의 철학적 모색”, 미술교육논총, 제9집, pp.41-61, 2000.

[3] 진정식, “학교미술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대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510-516, 2012.

[4] 이원두, *디지로그 개념을 활용한 미술 표현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 안휘준, “겸재 정선과 그의 진경산수화,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학보, 214집, pp.1-30, 2012.

[6] 안휘준, *안견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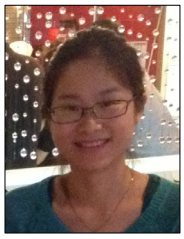
[7] 장언원, *중국화론 선집: 주요화론 여섯 편의 번역과 주석,* 김기주 역, 미술문화, 2007.

[8] 왕백민 , *동양화 구도론,* 강관식 역, 미진사, 2011.

[9] 정인수, “초등 한국화 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연구-이동시점과 산점투시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제16집, pp.137-162, 2003.

저 자 소 개

박 하 나(Ha-Na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국민대학교 회화과(미술학사)
- 2013년 8월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전공(미술교육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덕정중학교 미술교사

<관심분야> : 매체, 미술교육

허 윤 정(Yoon-Jung Huh)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미술학사)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미술석사)
- 2000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미술석사)
- 2014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공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창의성, 창의적 인지, 매체, 미술교육